

環境에 對한 適應: 日本 海女(あま)의 境遇¹⁾

Fit Surroundings: Lessons From the Ama

David W. Plath(미국 일리노이대 인류학과 교수)

번역 : 유철인(제주대 사회학과 교수)

한 일본인이 한번은 내게 日本 海女(あま/アマ/이마)에 대한 연구를 그만 두라고 한 적이 있었다. 그가 말하길, 해녀는 전형적인 일본 여성이 아니며, 외국인 연구자는 가정과 남편과 자녀들에게 헌신하는 이상적인 현모양처에 가까운 여성을 연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비디오가 보여주듯이, 나는 전형적이지 않은 것을 연구함으로써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된다고 생각한다. 해녀의 사례는 노년화와 일, 성과 육체노동, 숙련된 신체의 "live-ware"와 고도의 기술적인 하드웨어(hardware)에 대한 우리의 상식적 지식에 의문을 갖게 하는 것이다.

1. 바다의 女性 : 海女の 이미지

북아메리카의 카우보이처럼, 잠수하는 여성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그 숫자 이상으로 1,000년 이상 일본 사람들의 이미지 속에 한 부분을 차지해 왔다. 일본 해녀는 20세기에 진주잡이 소녀로 재탄생하여 외국에 널리 알려지기 시작하였고, 서양의 대중문화 속에까지 등장하기 시작했다. 해녀는 007 제임스 본드 소설과 영화("두번 죽지 않는다" You Only Live Twice)에도 나오고, 해양주제공원에서 다이빙 쇼에서 일본 해녀가 잠수하는 모습을 실제로 볼 수도 있다. 도시 엘리트들과 기업가들은 그들 자신의 목적을 위해 직업적으로 물질하는 해녀들의 삶과 목적과는 종종 관계가 없는 이러한 과거와 현재의 이미지들을 많이 만들어 왔다.

3세기경 일본에 왔던 중국 여행자는 일본인들이 고기와 조개를 잡기 위해 잠수하는 기술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다. 그는 성별(gender)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역사적으로 여성과 남성은 모두다 잠수하는 기술을 가졌으며, 분명 전국에 걸쳐 대략 같은 수가 있었지만 몇 지방에서는 관습의

1) 번역자註 : 이 글은 일본 三重縣(미에현)의 해녀의 삶과 그들의 환경을 보여주는 "환경에 대한 적응"(Fit Surroundings)이라는 비디오의 해설판, "Lessons From the Ama"를 요약·번역한 것이다.

문제로서 잠수작업이 성차별화되기 시작했다. 이 비디오에서 보듯이 志摩(Shima, 三重縣 志摩반도)에서는 조개잡이는 여성의 일이며, 예외는 조금 있지만 대개 남자들은 고기를 잡기 위해서나 스포츠로 잠수를 하고 있다.

그러나 남자 잠수부들은 이미지 작업에서는 등장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고대의 귀족들은 해녀를 인간 상황의 고독함에 대한 상징으로 만들었다. 약 1,000년전 “해녀(あま)의 슬픈 휘파람”이란 문구는 시적인 상투어가 되었으며 현재도 사용되고 있다. 昭和 시대 천황(히로히토)은 1980년대 중반 신년축하 시에서 그 문구를 사용하고 있다. 오늘날의 해녀(あま)는 폐에 남은 공기를 없애면서 입술을 오므린다. 그것은 헐떡거림 또는 투덜대는 것처럼 소리가 난다. 그러나 해변에서 편안하게 묵상하는 고대 왕실의 시인들은 이 숨비소리를 지독히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야만 하는 인간의 신음소리로 묘사하였다. 유사한 일이 북아메리카 대평원에서 수세기 후에 일어났다. 동부도시에서 온 방문객들은 밤의 캠프파이어 옆에서 안락을 느끼면서, 가축들이 마구 날뛰지 못하도록 달래기 위해 목동(카우보이)들이 노래를 부르는 것을 들으면서 외로운 카우보이라는 생각을 하였다.

반면에 일본 봉건시대 도시에 사는 미술가들은 해녀를 슬픔보다 성(sex)의 상징으로 묘사하였다. 그들은 당시 상인계급의 텔레비전이라 할 수 있는 목판에다 해녀를 미국 스포츠 잡지인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 Sports Illustrated”의 수영복 특집호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핀업 여성(pin-up women, 벽에다 붙여 놓는 야한 포스터에 등장하는 여성)의 모습으로 그려 놓고 있다. 가장 흔하게 등장하는 모습은 한 잠수가 전복을 따는 창을 입에 단단히 물고 가슴을 드러낸 채 물을 똑똑 떨어뜨리면서 물 속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녀나 또는 가까이 있는 동료는 포획물인 갓 잡아 올린 전복을 쳐들고 있는데, 전복은 여성의 생식기에 대한 상징이기도 하다. 독자들이 그러한 메시지를 놓치지 말도록 때때로 아랫도리를 드러낸 어린 소년의 모습이 그 옆에 등장한다. 아니면 파도에 깎여 발기한 남자 성기처럼 보이는 바위가 바다 중간에 우뚝 서 있기도 한다.

가슴을 드러낸 해녀는 오늘날에도 우편엽서와 포르노 영화에 등장한다. 그러나 이 비디오 프로그램에서 보여지듯이, 1920년대 근대국가의 점잔빼기로 잠수들은 옷을 입어야 했으며, 1950대에 와서는 고무 잠수복을 입고 작업하기 시작했다. 이제 사진동호회가 志摩 해변에 올 때는 직업모델을 대동하게 된다. 모델을 통해 해녀를 표현하려고 하지만, 지나치게 큰 가슴과 창백한 피부 그리고 지나치게 연약한 근육만을 보여줄 뿐이다.

1893년 志摩에서 처음 시작된 진주양식산업은 해녀를 진주잡이 잠수로 등장시킨 광고를 하였다. 20세기에 대히트한 광고의 하나인 진주잡이 잠수는 진주양식 초기에 실상 있기는 하였다. 진주양식업자들은 Ago만의 밑바닥에서 진주조개를 끄집어내기 위해 때때로 해녀들을 고용하였다. 그러나 그후 75년 동안 진주조개는 부표에 매달려 있는 장 속에 두어 왔다. 양식업자는 해녀는 일본에만 있는 것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그러나 사실상 해녀는 분명 한국에서도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志摩의 해녀들

은 요즘 두 개의 수건으로 머릿수건을 한다. 志摩의 해녀들이 한국으로 출가해서 일하던—이 비디오에서 나오는 기요상의 어머니처럼—시절인 20세기 초에 한국의 해녀들은 이미 머릿수건을 사용했던 것이다.

해녀에 대한 이미지들은 현재 일하고 있는 해녀의 삶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비디오 프로그램에서 보듯이, 보온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 때문에” 해녀들은 검은 고무 잠수복 위에다—하얀 옷은 조류에 빨리 얼룩지지만—하얀 옷을 덧입는다. 그러나 해녀들의 가장 큰 불만은 운동선수의 체격에다 햇빛에 그을린 얼굴과 뺨물에 절여진 피부를 가진 그들을 사람들은 여자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해녀들은 딸이 시집가기 전까지는 물질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도 한다.

2. Plain Diving (裸潛業?)

해녀(あま)의 물질(자맥질)을 일본어로는 su-moguri(素潛り / 素もぐり / 素モグリ/plain diving)라고 한다. 즉 산소공급 장치 없이 하는 물질을 말한다. 농민(peasant)을 트랙터가 없는 경작자라고 한다면, 해녀는 바다의 농민이므로 20세기의 눈으로 보면 시대착오적인 사람으로 보인다.

산소(공기)호스나 펌프는 일본이 서구에 항구를 개방한 1870년대에 영국으로부터 들어온 것이다. 志摩와 다른 지역의 잠수들이 산소공급 장치를 사용하자 지방의 관계부처에서는 자원이 고갈되는 것을 우려하여 전복잡이 물질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일본의 기업가들은 산소공급 장치를 제한없이 사용할 수 있는 지역(캘리포니아 해안의 남서태평양 지역)으로 그 기계를 재수출하였다. 한 세기가 지난 후 이들 대부분의 지역에서의 전복잡이는 수익성이 없어 중지되었다.

SCUBA 장치는 어느 정도 허용되었지만, 잠수가 좁은 암초 사이를 빠져나가거나 무성한 해조류 사이를 돌아다닐 때 SCUBA 장치는 잠수의 움직임을 방해하거나, 심지어는 잠수를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다. 이 비디오는 해녀가 될 수 있는 한 물고기처럼 자기의 몸을 유선형처럼 어떻게 만드는지를 잘 보여준다. 해녀들이 등뒤에 진 산소통으로 한시간 또는 그 이상을 물 속에 있을 수 있는 능력은 산소통을 지는 것 때문에 움직임이 자유롭지 못하고 느리게 되는 것과 상쇄된다.

“plain diving”이란 말에서 “plain”이란 단순함을 뜻하지 않는다. 물속에서 해녀는 필요한 것이 모두 갖추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헤쳐 나아가야만 한다.

해녀를 둘러싸고 있는 물은 끊임없이 움직이므로 그녀는 불규칙한 물결과 큰 파도의 흐름에 자기의 움직임을 맞추어야만 하고, 부력과 가시성이 변하는 것에도 지속적으로 맞추어야만 한다. 해녀는 암초의 지형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하며, 전복이 있을 만한 곳을 가늠해야만 한다. 그리고 그녀는 폐속의 산소가 감소하는 것을 고려하여 자기의 위치에서 수면까지의 거리를 가늠해야만 한다.

운동선수처럼 해녀는 신체의 live-ware가 특별하다. 물질작업의 숙련자가 되기위해서는 전신의 활동을 즐겨야만 한다. 또한 志摩의 잠수들이 말하는 것처럼 바다를 사랑해야만 하며 바다의 분위기를 알려는 열망을 가져야만 한다.

종종 특별한 체형이 물질작업에 더 유리하다고 주장되기도 한다. 일본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피하지방을 더 많이 가지고 있어 찬물에서 작업할 때 더 오래 체온을 유지할 수 있어 남성보다 더 낫다라고 한다. (이런 생각 때문에 물질 잘하는 남자보고 여자로 태어났어야 한다고 사람들이 놀리기도 한다.) 잠수들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정도만큼 작업을 하였던 과거에는 지방이 강점이 될 수 있었다. 그러나 고무 잠수복을 입고 물질을 하며, 잠수할 수 있는 시간이 제약되어 있는 오늘날에는 찬물에서 견디는 힘은 그리 크게 유리한 것은 아니다.

암초 주변은 놀랍게도 다양하여 어떠한 체형이든시간에 적합한 장소를 제공한다. 그럭저럭 작은 장소에 알맞다는 것을 말하는 것처럼 보인다. 작은 폐활량을 가진 해녀는 얕은 곳으로 더 많은 잠수를 하여 깊은 곳까지 잠수하는 다른 해녀들만큼 수확할 수 있다. 가냘픈 몸매를 가진 해녀는 다른 해녀들이 몸집이 크거나 용기가 없어 들어가지 못하는 암초의 갈라진 깊은 틈까지 들어갈 용기를 가졌다면 많은 물건을 채취해 낼 수 있다.

내가 훌륭한 해녀를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물었을 때 志摩의 해녀들은 폐활량이나 찬물에서 견딜 수 있는 능력과 같은 신체적 요소들에 관해 말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가장 많이 드는 대답은 운동선수의 신조인 “makemai seichin”(負けまい精神), 즉 이기겠다는 정신이었다. 많은 채취를 위해 다른사람과 경쟁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과 싸움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체력과 신체의 통제능력을 갈고 닦아야 하고, 암초 환경에 대한 지식을 늘려야 하며, 지식과 몸의 움직임보다 효과적으로 연결시키는 일에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다. 훌륭한 숨씨는 오랜 경험(실천)을 통해서만 이뤄지는 것이다. 힘찬 에너지는 성숙한 판단이 없으면 탕진되는 법이다.

이 비디오 프로그램에 나오는 잠수들은 전형적인 해녀인가? 어떤 측면에서는 그렇다. 모든 동아시아의 plain-divers(裸潛業者?)는 같은 기술과 도구를 가지고 있다. Fuseda(布施田)에서 본 것은 잠수가 있는 거의 대부분의 다른 곳에서도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전복 따는 칼이 더 짧을 수 있으며, 테왁이 숨으로 채워진 생명줄이 아닌 트럭 바퀴의 안쪽 튜브로 만든 것을 볼 수 있으며, 전복이 志摩의 암초보다 더 깊은 곳에 있을 수도 있다. 해녀작업의 가장 “전형적인” 특징은 물질이라는 것은 지역환경에 끊임없이 적응하면서 진화하는 것이라는 점이다. 물질은 단순히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다.

3. 權力과 搾取

성(gender)과 권력과 착취의 문제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극단의 서로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비디오 프로그램은 이 문제를 조심스럽게 다루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海女(あま/アマ/아마)가 아마존(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여인족의 전사로서 해방된 여성의 표본인 여장부)이라고 생각한다. 정반대로 소수의 사람들은 일본의 엄한 가부장제에서 남성이 모든 여성을 지배했던 것처럼 남성이 해녀를 지배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두가지 관점 모두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남성이 해녀를 착취하였다는 가설은 일찍이 10세기 시대의 기록에 나타난다. 증조모 세대 또는 그 이전 과거의 志摩에 대한 구술사도 이러한 생각을 보여준다. 당시에는 생활이 힘들고 어려웠고 현금이 아쉬웠던 시절이었지만 해녀를 아내로 둔 남자는 한가한 사람이었다. 그는 아내가 바다에서 일을 할 때 하루종일 술마시고 도박을 하며 빈둥거린다.

지구상에서 이런 남성천국은 Brigadoon처럼 사라진 것 같이 보인다. 해녀와 결혼한 남자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志摩 남자들은 진주양식을 하고 있다. 그들은 농부들이 그래야 하는 것처럼 열심히 일한다. 이 비디오에서 보는 뱃사공들도 열심히 일한다. 바다에 있지 않을 때는 종종 그들은 배를 청소하고 기계들을 손보면서 새벽부터 어스름까지 바닷가에서 일한다. 내가 아침이 오기 전에 일어날 때 보면, 구름과 파도 그리고 조류의 흐름을 살피는 두서너 명의 뱃사람을 거의 늘 발견하게 된다.

적어도 일할 때만큼은 생명줄을 묶은 해녀와 그녀의 남편은 동등하다. 이 비디오에서 Sakaguchi Suyako는 결혼한 해녀의 경우 여자가 남자보다 더 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그런 증거를 별로 찾지 못했다. 해녀들은 생명줄을 묶은 해녀를 돌보는 남자는 적어도 해녀의 일만큼이나 긴장되고 고단한 일을 하고 있다고 말한다. 생명줄을 동력으로 끌어올리기 전에는 매 2, 3분마다 손으로 해녀를 끌어올려야 했기 때문에 하루의 긴 물질작업이 끝날 때면 남자는 해녀보다 더 지치게 된다.

이 비디오를 제작하는 동안 우리는 생명줄을 묶은 해녀를 돌보는 일이 얼마나 정교해야 되는지를 알았다. 세 사람의 카메라맨이 짝을 이루어 물질하는 작업을 찍기 위해 동행한 적이 있었다. 후에 그날의 수확이 보통 때보다 적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되었다. 세사람의 무게 때문에 아내가 물속에 잠수하는 동안 아내 위에 배를 고정시키는 작업을 어렵게 하였고, 결국 평상시 그들의 작업속도를 맞추지 못하였던 것이다.

해녀들을 배에 태우고 가는 뱃사공은 고용된 대가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뱃사공은 각각의 해녀가 수확한 물건의 일정량을 수수료로 받기 때문에 해녀들을 달래거나 지도하기도 한다. 대개 뱃사공이 전복이 많을 것 같은 암초지역을 추천하면, 해녀들은 그곳에서 일할 것을 동의하게 된다. 물론 각 해녀들은 독립적인 계약자이므로 뱃사공에게 다른 곳에서 혼자 잠수하겠다고 데려다 달라고 할 수 있다.

만약 과거의 志摩가 남성들의 천국이 아니었다면 해녀들의 천국이었을까?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현금 수입을 벌어들이는 여성은 좋은 신부감이었을 것이다. 반대로 그녀의 부모는 집에 더 머물게 하여 가계에 기여하도록 했을 것이다. 일본학자들은 志摩에서 한 때 관습이었던 “지체된” 결혼(내가 보기에는 지체된 결혼식의 형태) 양상에 대하여 많은 글을 써 왔다. 이러한 주제에 대한 대중적인 사회학적인 책으로 Yome no Tengoku(“신부들의 낙원”)이란 제목의 책이 있다.

20세기에 들어와서 志摩에서의 결혼은 도시중산층의 규범을 따르게 된다. 도시 중산층의 규범은 사무라이 관습에서 온 것으로 명치시대 가족법에 쓰여져 있는 대로 결혼식을 올린 직후 신부는 신랑집으로 가는 것이다. 그러나 20세기 중반 신부가 해녀라면 그렇지 않았다. 이따금씩 내가 志摩에 있을 때 다음과 같은 일을 겪는다. 주로 남자인 도시 방문객은 지역주민이 외국인에게 그 문제를 숨길 거라고 추측한다. 그래서 그는 나를 한쪽으로 데려가서, 교수인 당신은 여자가 결혼전 몇 달간 심지어는 몇 년간 외진 바위 해안가에서 남자와 잘 수 있다는 것을 아는지 은밀하게 묻는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현금이 별로 없는 志摩에서 해녀 딸은 자기의 부모님 집에서 약혼자와 지내도록 해준다. 두 사람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면, 특히 건강한 여자아이나 사내아이가 태어난다면 그들은 그들 자신의 가족을 꾸미거나 시집으로 들어가게 된다. 오늘날과 같이 새로운 가족이 막 시작하려고 한다는 의미의 결혼식이 아니라 새로운 가족이 이루어져 잘 지내고 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결혼식이 그 때 열린다.

만약 지배의 일반적인 논리를 현재나 과거에 똑같이 적용시킨다면, 다음과 같은 주장이 나올 수 있다. 전형적인 도시 중간층의 가정주부는 남편의 경제적 능력을 명백하게 증명하는 것으로서 눈에 띄게 소비하고 집에만 머물러야만 하기 때문에 이용(착취)되는 것이라고 말해진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바닷가 기슭에서 술마시고 도박하였던 과거의 해녀 남편은 착취자가 아니라 피착취자였던 것이다. 그날 그날의 수확을 기록하는 어업협동조합이 없던 그 시절에는 각각의 해녀들이 채취물을 독립적으로 팔았기 때문에, 남편은 해녀 아내의 물질 솜씨에 대한 최고의 증거인 셈이다.

4. 協同組合

19세기말 국가는 일본열도 전역에 지방 어업협동조합을 설립하였다. 조합은 그전 3세기 동안 마을 공동어장을 관리했던 마을회의의 기능을 이어받았다. 해안가 마을들은 그들만의 공동어장을 관리해왔으며, 주민들간에 욕심이 지나친 경쟁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 조수간만 지대에서 자연적인 재생산과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1950년대 자연마을들은 근처의 도시나 읍지역에 편입되면서 본래의 정치적 정체성을 상실하였다. 그러나 志摩에 있는 어업협동조합은 고집스럽게 그대로 유지되어 왔다.

마을공동어장의 침입문제는 Fuseda(布施田)와 이웃 마을인 Wagu(和具)의 어부들 사이에 주먹싸움

이 일어나게 만든다. 다른 역사적 기록들은 별로 없지만, 조합은 바다의 보이지 않는 경계에 대한 지도와 분쟁기록을 가지고 있다. 마을공동어장의 경계에 대한 분쟁 기록은 17세기까지 올라간다. 때로는 토쿠가와 시대(1603~1868)의 Toba(烏羽)에 있는 大名(daimyo)이나 근대에 와서는 나고야의 고등법원까지 가서야 해결되는 분쟁도 있었다. Fuseda(布施田) 구술사는 이러한 분쟁을 Fuseda(布施田)가 Wagu(和具)를 이겨 어업권 문제를 해결했다는 전설적인 보트경주에 함축해 놓았다. 이 곳 사람들은 방문객에게 교묘한 책략으로 보트경주를 이긴 Fuseda 사람의 무덤을 보여주곤 한다.

해양의 재생산을 유지하거나 발전시키려는 노력도 현대적인 생물연구소가 생기기 훨씬 전부터 있어 왔다. 마을 사람들과 상인들과 무사 관리들 모두 조개류와 해조류의 신품종을 실험적으로 들여왔다. 다른 종류의 품종들도 작은 규모이기는 하지만 성공적으로 양식하였다. 그 중 일부는 이윤이 많이 남는 양식업으로 발전하였다. 예를 들면 대규모의 전복양식이 일본과 해외의 여러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 비디오에서 보면, 수경된 전복알들은 자연적 생산을 증가시키기 위해 암초위에 다시 뿌려진다. 그러나 매니저인 Ikeuchi씨가 이 비디오에서 논평한 것처럼 그 결과는 아직까지 확실하지는 않다.

재생산과정에서 손쉽게 손을 쓸 수 있는 것은 잠수의 물질이다. 예를 들어, 수세기 전 몇몇 지방의 마을들은 산란기간동안 채취를 금하거나 특정 장비의 사용을 금하는 정책을 유지했다. 현재의 조합들은 그와 같은 잘 조화된 정책들이 더욱 더 필요함을 느끼고 있다. 조합들마다 그 규칙은 다르지만, 각각의 지방에서 그 규칙은 미시생태학적으로 적합한 것이라 하겠다.

또한 조합은 점점 더 소규모 경영과 판매를 하고 있다. 예를 들면, Fuseda(布施田)에서는 한 해녀가 매일 또는 계절에 따라 채취할 수 있는 물량의 한계는 없지만, 4종의 조개류에 대해서는 해녀가 잡아온 그날 바로 조합에 팔아야 한다. 따라서 조합이 문 닫는 날에도 해녀가 잠수할 수는 있지만 4종의 조개류는 잡아오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조합이 쉬는 날에는 4종의 조개류 이외의 것은 무엇이든지 채취할 수 있다. 그래서 쉬는 날이란 단지 전복이 설 수 있는 날일뿐이라고 농담을 하면서 해녀들은 해조류나 굴 등을 채취하려 가기도 한다.

조합에서는 해초가 무성히 자란 짧은 기간동안에는 여러종류의 해초를 판매한다. 매일 판매하는 것은 단지 전복과 top-shell(소라?) 뿐이다. 해녀는 여자 사냥꾼으로 생선, 뱀장어, 낙지, 문어, 오징어, 그밖의 여러 종류의 조개 등 먹을 수 있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잡아낸다. 그러나 조합운영자는 그런 것들은 너무 양이 작아 거래비용이 빠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해녀들은 잡은 것을 가족과 친척들과 나누어 먹거나 또는 지역 식당에 개인적으로 판다.

경매방식도 조합마다 다르다. 이 비디오를 자세히 보면, 매니저인 Ikeuchi씨가 중매인에게 그날의 경매결과를 말했을 때, 검은 전복은 낮은 가격을 부른 다른 중매인에게 낙찰되었다고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을 것이다. Fuseda(布施田)에서는 중매인이 높은 가격을 부를 수도 있고 낮은 가격을 부를 수도 있다. 만약 그가 상황판단을 정확히 한다면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

한가를 보면 다음과 같다. 검은 전복의 시기가 1kg당 9000엔 정도라고 하자. 공급물량이 부족해서 당신은 그날 나온 물건을 사려고 9400엔 정도의 높은 가격은 정도의 높은 가격을 지불할 용의가 있다. 그러나 다른 중매인은 대도시 시장의 판매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생각하여 약 8800엔 정도로 낮게 부를 것이라고 당신은 계산한다. 그래서 당신은 8903엔이라는 낮은 가격을 부르고, 당신이 지불하려고 준비했던 것보다 적은 비용으로 그날의 물건들을 가져가게 되는 것이다.

조합에 대한 가장 중요한 특징은 조합은 소위 말하는 “공공재의 비극”에서 제외된다는 점이다. 비극이라는 주장은, 아주 간단하게 말하자면, 인간의 탐욕 때문에 공동이용이 가능한 자원은 파괴될 것이라는 것이다. 사실상 많은 경우에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일본에서 마을공동 소유토지의 운명이 그러했다. 어업조합들이 늘 생산량을 지속시키거나 그들의 영역을 지켜 온 것은 아니다. 그러나 비극은 내부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토지수용이나 오염과 같은 형태로 외부에서 온다. 해안선 지역은 발전소나 화학공장들이 사용하는 쓰레기 매립장이 되기도 한다. 조합원들은 생계수단을 잃은 대가로 보상을 받지만 지역의 다른 사람들은 그나마도 없다. 일본은 해안선의 3분의 1가량을 이런식으로 파괴하고 있다.

5. 海女小屋(Koya)

해녀들이 해안가에 세워 둔 오두막(小屋, Koya)은 먹고 쉬는 공간으로서 또는 작업 전후에 옷을 갈아입는 장소로서 분명히 실용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많은 해녀들은 해안가로부터 걸어서 단지 몇 발자국 또는 몇분 정도의 거리에 살고 있다. 즉 그들은 집에서 이러한 일들을 쉽게 처리할 수 있다. 해녀의 물질활동의 매력중의 하나인 小屋의 가장 큰 장점은 1년 중 6개월을 동료들과 함께 낮동안 시간의 대부분을 그곳에서 지낼 수 있다는 점이다.

이 비디오에서 Hamaguchi Akiko는 小屋의 동료들끼리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 지를 말하고 있다. 해녀들은 수확이 좋은 나쁘든지 간에 휴식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즐기기 위하여 小屋으로 가는 것이다. 다시말해 小屋은 잠수작업의 도덕적 환경을 제공하는 매우 적합한 장소이며, 해녀들간의 경쟁심을 상쇄시키는 공동의 유대감을 불러일으키는 곳이기도 하다.

“Big Catch”(大漁)는 어선의 깃발과 돛대(dive-mast)에 묶는 부적이 쓰여지는 슬로건이다. 오사카 상인들이 “돈 벌었어?”하면서 인사하듯이 해녀에서는 “많이 잡았어?”가 일상적인 인사이다. 그날 잡은 모든 것을 공동으로 하거나 해녀와 선주들이 가을에 놀러 가기 위해 소득의 일부를 따로 떼어놓는 등 잠수시즌 중 한 두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녀들은 잡은 것을 서로 나누지 않는다. 다른 사람이 잡은 것들을 분배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해녀들은 小屋의 다른 동료들과도 매일 경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당신이 물속에서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구조에 대한 최고의 희망은 당신이 처한 상황을 알아챌 수 있을 만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다. 아마도 그들은 당신의 小屋 동료들일 것이다. 엄밀히 말하

면 스쿠버다이버들의 2인 1조 방식("buddy system")은 아니지만 같은 小屋에 속하는 사람들은 잠수하는 동안 대개 같은 암초지대에서 작업을 한다. 그리고 각각의 행동을 알 수 있을 정도로 가깝게 무리지어 일하는 친구집단도 있다.

반면에 경쟁자들이 가시거리 안에 있을 때에는 전복이 많이 있는곳에 대한 당신의 지식을 숨기기가 어렵게 된다. 아무도 당신이 아는 그 위치를 찾지 못하기를 바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혼란시키려고 때때로 애매한 행동을 하기도 한다. 한 해녀는 말하기를, 각자가 알고 있는 곳을 서로 알고는 있지만 싸움을 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장소는 피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몇 시간 후 小屋에서는 물속에서 죽은 다른 지방의 해녀 이야기가 나온다. 그녀의 시신은 찾지 못했지만 그녀의 전복 따는 칼이 다른 해녀의 비밀장소에서 발견되었다는 이야기이다.

사냥이나 어로작업과 마찬가지로 裸潛業(plain-diving)에서도 숙련자가 되기 위한 핵심적인 지식은 잘 말해 주지 않는다. 이 비디오에서도 Kiyō-san은 그녀의 어머니가 전복 찾는 법을 잘 알고 있다고 치송하지만, 그러한 지식을 딸에게 전수해주지는 않았다고 이야기 한다. "전통적인" 기술은 부모로부터 아이에게 그리고 숙련가로부터 초보자에게 "전수되는" 것이라고 종종 이야기되지만, 초보자는 배우려고 고군분투해야만 할 것이다.

바로 여기에 小屋의 중요성이 있다. 그날의 물질에 대한 경험담을 들으므로써 초보자는 변화하는 암초 환경과 전복의 습관에 관한 그녀의 기초지식을 계속 넓혀나갈 수 있다. 육지에서 보면 암초는 움직이지 않는 것으로 보이지만, 잠수들에게는 암초는 살아있고 계속적으로 조수와 폭풍우에 따라 변화하는 것이다. 전복은 그런 변화들에 반응하므로 전복 채취자는 그런 것을 알아야만 한다. 해녀는 바다의 주변환경에 잘 적응하는 숨씨를 보여야만 한다. 그러나 만약 그녀가 小屋에서 많은 시간을 애기하며 보내지 않는다면 물속에서 많은 시간을 허비하게 될 것이다.

6. 맺음말

고도의 과학기술은 소프트웨어(software)의 개발에 의해 발전할 것이다. 고도의 과학기술은 마이크로칩(microchip)과 자동제어장치를 가지고 인간을 육체로부터 구원하고 많은 정보 속을 휘젓는 즐거움을 주는 지상낙원을 약속한다. 나는 증기기관이 그랬던 것처럼 영리한 로봇이 인간 육체의 고도의 감각적 재능을 대체할 것이라고는 믿지 않는다. 그러나 현대인으로서의 우리의 오만함은 "전통적인" 기술은 현재의 상황과 맞지 않다고 버리려고 한다. 잘 훈련되고 재치있는 신체의 기술(live-ware)에 대한 이러한 편견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좋은 것은 아무 기술도 쓰지 않아야 한다는 상황도 있다는 교훈을 알 필요성이 있다. 때때로 가장 좋은 기술은 주변 환경에 잘 적응하는 인간신체인 것이다. 해녀는 이미 오래전에 그러한 교훈을 배웠던 것이다.